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8호 [부제 제25847호] 주제 106 (2017)년 12월 4일 (월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누리에 떨쳐준 우리 당에 최대의 영광을!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케트 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위대한 대승리를 경축하는

평안남도, 황해남도, 함경남도 군민련환대회 진행

사회주의조선의 자주적립, 불가항력적위력을 만방에 펼치며 온 행성을 전길시킨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의 불괴성은 온 나라를 무한한 경쟁과 환희로 물어민지제 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주체의 핵강국 건설사에 가장 빛나는장을 이로 새긴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의 대성공을 우리 조국의 천민년이래를 아울러 민족사적 대행사로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명도밑에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케트 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위대한 대승리를 경축하는 평안남도, 황해남도, 함경남도 군민련환대회가 2일과 3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대회장들은 조국창사에 영원 불멸 할 11월 29일의 눈부신 기적으로 사회주의조선의 전략적 지위와 위상을 온 누리에 떨쳐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병진의 기치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찰에 흥들려, 충매전래갈 혁명적열정을 담고 모여온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군중들이 차넘치었다.

대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 만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등의 구호들이 모여져있었다.

또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퍼시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 대성공을 열렬히 축하한다』 등과 같은 구호들이 세워져있었다.

지방당, 청천기관, 군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군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하였다.

대회들은 애국의 주제로 시작되었다.

평안남도에서

평안남도군민련환대회에서는 조선인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조선로동당 평안남도위원회 위원장 김두일同志가 평북한계 이어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김호목同志, 조선인민군 장병 리홍집同志, 조선인민당원회 1비서 김정호同志과 경축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선로동당의 정체적



경단과 전략적경찰에 따라 단행된 새 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막강한 힘의 판생한 계 인민적대경사이며 사회주의조선의 훌승의 기상을 단번에 퍼시한 특대사변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실 용지를 시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온갖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도전을 단호히 쳐갈기시며 국가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행틀파장을 앞장에서 이끄신텐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믿고 미래에 대한 신심과

탄도의 손길아래 『3. 18혁명』과 『7. 4혁명』, 7. 28의 기적적 승리, 9월 3일의 장쾌한 수소탄폭음에 이어 로케트무기체개발의 원결 단계에 학교히 도달한 가장 위력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가 판생하게 되었다는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을 실현하여 위대한 강국의 존엄을 만방에 퍼쳐주시고 맑고 창창한 억만년 미래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는 훌륭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는 훌륭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이 세계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한 승리자들의 고지안과 혁명적당군의 풍모를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며 편비산훈련열풍의 불도카니속에서 일당백의 만능싸움군으로 끈끈히 결속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구상을 가장 충직하게, 가장 완벽하게 실천한 국방과학기술사들의 결사

관찰의 투쟁정신과 융감성을 따라 배워 도안의 중요대상건설장들에게서 일련의 축하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중첩되는 천만 시련속에서도 조선로동당의 명진

로선과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을 발달시켜 현대적인 경사제, 공격전을 힘차게 벌려 역사적인 『11월대사변』을 안아온에 대하여 커다란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강태국공민의 자부심을 알고 사회주의

만복을 마음껏 누릴 부강번영의 밝은 빛을 내다보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함부로 침해할수 없게 되었으며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몽친 사회주의조선의 힘찬 전군을 가로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천만군민이 푸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우리 운명의 태양이 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경사용위하며 당의 사상과 행동을 충실히 반芻해나갈때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조직들에서 당의 능력정책을 만들고 과학기술력을 일으키고 디수화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높은 생산성으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정신을 경사용위하며 에국의 바울안고 국토관리사업에 한 사람같이 편처나거리와 마을, 일터를 더욱 알뜰히 꾸려나갈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이 조성된 철세의 요구에 맞게 최대의 격동 상황에서 적들의 준군을 예리하게 주시하여 혼연혁명 5대방침 관찰에 충매진하여 총용준비를 빛틈없이 갖추어 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이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격진장마다에서 당의 민족적한 후비녀, 척후녀, 의족 부대로서의 위력을 날길없이 편치며 바미대결전의 시각이 닦쳐온다면 미세의 승리를 품어버리고 기이이 최후승리를 전승세대가 훨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함경남도에서

함경남도군민련환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부성명을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위원장 김성일同志가 평북한계 이어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김두홍同志, 조선인민군 장병 김진국同志, 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김철현同志가 경축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구상을 가장 충직하게, 가장 완벽하게 실천한 국방과학기술사들의 결사

관찰의 투쟁정신과 융감성을 따라 배워 도안의 중요대상건설장들에게서 일련의 축하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중첩되는 천만

시련속에서도 조선로동당의 명진

로선과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을 발달

시련속적인 경사제, 공격전을 힘차

게 벌려 역사적인 『11월대사변』을

안아온에 대하여 커다란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강태국공민의 자부심을 알고 사회주의

2면으로 계속



(4) 조선의 뜨거운 겨울

만세! 만세!
끓어솟는 감격의 일중
한회의 일파 급이치는 이 땅
조선의 뜨거운 겨울은
이 행성을 끓이고 있다

가슴은 더질듯 궁지로 부풀어올라마
하늘에 달은 강대한 민족의 자부심
세상을 끌어보는 강국의 존엄을 암고
내 놓 전진에 미치고 끝 말이 있어라
— 우리는 위대한 명장의 인민이다!

우리 원수님 혜택아신
화선원의 결사의 그 생생길이
장례한 승리의 쾌도로 뛰어갔나니
만만년의 역사적 속망을 이루신 결세의
애국자
『화성-15』형의 용왕한 불기동으로

우주안에 빛미대결전의 전승사를 아로
새긴
만고의 영웅

우리 수령님들 한정생을 바쳐
열어놓으신 로드트강국에로의 길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건 그 길에서
솟는 해, 뜨는 불을 맞고 보내시며
우리 원수님 안아오신
장례한 대승리여

사랑하는 인민은 단감에 새우시고
천바람부는 엄동의 그 한한율
위대한 애국의 일기로 활활 불태우시며
핵사의 불을 부르시는 우리의 창군
자신의 승리과 범을 다 뿐이며
지구의 축인듯 일으케우시는

고 거대한 통제엔
통제의 동트대를 누비며
조선의 불이 끓고 있다

위대한 명장의 품에서 떠여난
뜨거운 생생체
『화성』—불을 인은 그 이름처럼
하늘땅도 타오르고
민족의 온인을 우리로는 천안심장도
고마움의 경쟁으로 달아오른
조선의 뜨거운 겨울

김정은조선의 강대한 위용앞에
미국은 어지없이 놓아 없어지고 있다
우리의『화성』이 뛰어난 빛발앞에
성조기의 창백한 흰 벙개를 끼고 있다
오, 조선의 뜨거운 겨울은
이 행성에 영원한 정희의 불을 무르고 있다!

리 평 옥

인민의 인사를 받으시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여기 지금이나 나라의 정치적 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협강들이 각축전면화로 무참히 짓밟히며 어제날의 악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 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견드릴 수 없는 자주적인 인민으로 존엄화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자!

부를 수록 미더운 우리의 승리자들이다.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드트강국 위엄의 실현에 이바지한 그들에 의해 조국과 인민은 일월한 속력을 보내고 있다.

일어에서도 가정에서도 새령의 대륙간탄도로켓에 대한 이야기가 울리고 있다. 행궁길을 달리는 병사들의 대으로도 우리

의 위력한 주체무기들로 만미대경전에서 승리의 멀티의 기상이 치솟았다.

조국이 이룩한 승리를 두고 그처럼 기뻐하며 격동을 금치 못해하는 인민의 전정년체 모습과 함께 우리는 영광의 열기가 수도의 거리마다 아니 온 나라 방방곡곡에 차넘친다.

진정 오늘의 경사는 인아온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에 보내는 인민의 축하는 이아하여 그처럼 뜨거운 것인가.

실제에 주눅이 들세라 데 큰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진할줄 모르는 친구와 용기로 북돋아주시며 포현시린 화선에 우리 국방과학자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며 고생도 시련도 함께 나누신

다시금 걸이 세기고 있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말씀이 가슴을 두드린다.

오늘은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드트강국 위업이 실현되었던 날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손길에 이끌려 승리의 단상에 놓이 오른 국방과학전사들이 심장으로 헌신 진정이다.

그렇다.

우리 원수님께서 아버지였던 탄생 정성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오늘의 능력이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온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확고한 승리를 점령지을 수 있는 최후의 로드트강국 위업이 실현된다.

민족의 존엄사수권, 윤명수호전에서의 승리처럼 큰 것은 없다. 우리의 국방과학전사들은 바로 그 승리를 위해 싸웠다.

그들이 심장으로 죽어온 글발을 보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에 오로!

인민들은 누구나 말하고 있다. 국방과학자들이 온 한해를 들에게 하겠다고 국방과학전사들은 시대의 참된 전령들이라고 한다.

죽은 말이다. 인민들은 미덥고 영광한 국방과학전사들을 보면서 위해 한 달을 떠나 넘고 해쳐온 승리의 언덕들을 궁지높이 죽여하고 있다.

파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원수님과 진정으로 잘을 끼고 어깨걸고 당당히 조국민영의 길을 걸을수 있으며 만리마시대의 일상에 기수로 나설수 있는가를

경애하는 원수님, 신변의 위험 미지 아랑곳없이 전략무기개발의 전파장을 진두지휘하시고 도고 성과를 고스란히 국방과학전사들에게 물려주시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이끌어주신분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이시다.

그나날 우리 조국을 감히 누구도 넘볼수 없는 강대국으로 몇대 주시려는 그이의 원대한 뜻에 반하고 열회같은 정에 끌리고 강민락대한 탄력에 열정과 힘을 뱉어 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이시다.

우리 원수님께서 아버지였던 탄생 정성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오늘의 능력이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온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확고한 승리를 점령지을 수 있는 최후의 로드트강국 위업이 실현된다.

민족의 존엄사수권, 윤명수호전에서의 승리처럼 큰 것은 없다. 우리의 국방과학전사들은 바로 그 승리를 위해 싸웠다.

우리의 심장으로 죽어온 글발을 보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에 오로!

인민들은 누구나 말하고 있다. 국방과학자들이 온 한해를 들에게 하겠다고 국방과학전사들은 시대의 참된 전령들이라고 한다.

죽은 말이다. 인민들은 미덥고 영광한 국방과학전사들을 보면서 위해 한 달을 떠나 넘고 해쳐온 승리의 언덕들을 궁지높이 죽여하고 있다.

파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원수님과 진정으로 잘을 끼고 어깨걸고 당당히 조국민영의 길을 걸을수 있으며 만리마시대의 일상에 기수로 나설수 있는가를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과 함께 보낸다. 국방과학전사들이 제독한 삶의 진리, 그것은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다. 그 신념에 당파 혼정에 대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도 있다.

신념의 장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 경애하는

